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예수 우시다

(요 11:33 - 37)

이종운 원로목사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네 번이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은 무슨 이유로 우셨을까요?

1. 참 인간 예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35)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참 인간이시므로 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나셨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린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픔을 느끼셨으며 피곤하실 때는 배 밑창에서 주무시기도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심한 갈증을 느끼시고 부활 후에는 시장하셔서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시는,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참 인간이란 예수님께서 육신뿐 아니라 감정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인간의 슬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셔서 내려오실 줄 모르거나 고고하게 대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슬픔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으며 모든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요 11:33 하). 통분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be fully moved,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책망에 가까운 표현이며 노하심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통하고 분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심은 깊은 내적인 감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요 11:37)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자백과 같은 표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

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적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사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요 11:36)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또 다른 이유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며, 슬픔에 처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매우 귀한 존재들로 대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요(창 1:26, 27),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 2:9)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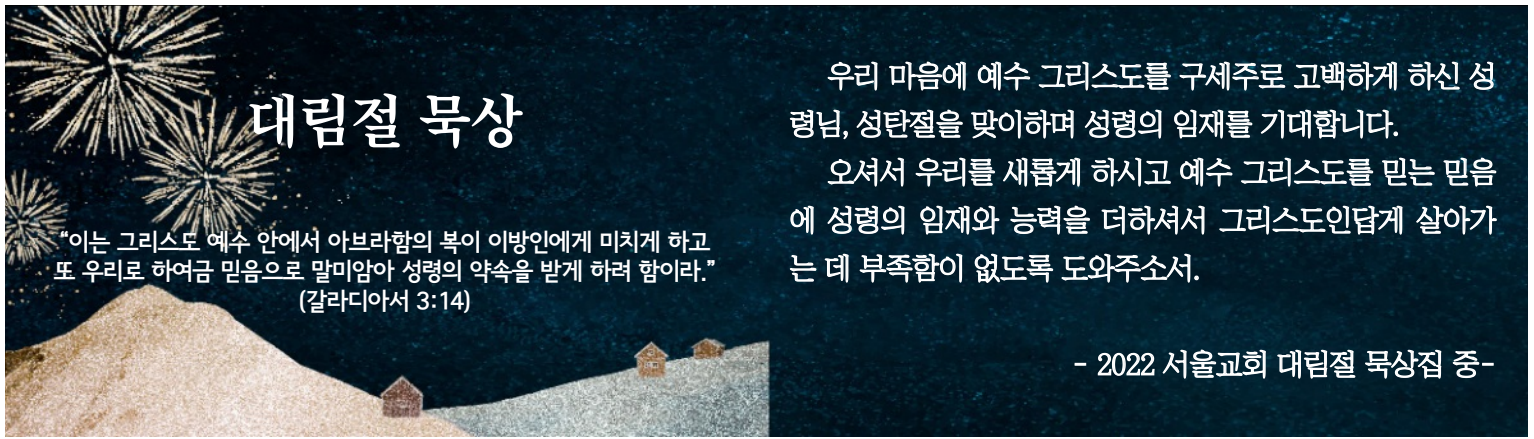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후 5:21).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온갖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들을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울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정에 통분히 여기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묵상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14)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 2022 서울교회 대림절 묵상집 중 -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회원자격 교인 총 1,130명 중 963명 투표, 찬성 960표 반대 3표
찬성률 84.9%로 정관개정안 통과

현재까지 별도 규정 형태로 시행 중이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고 교단헌법 개정예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칭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있었다.

공동의회 회원자격을 가진 교인 총 1,130명 중 위임 교인을 포함하여 965명이 출석하였다.

그중 963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960표, 반대 3표로 집계되었고, 이에 공동의

회 의장인 당회장이 회원 교인 총수 1,130명 중 960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84.9%로서 결의 요건인 2/3 이상이 찬성하여 상정된 서울교회 정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정관개정 공동의회는 또다시 불필요한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법상 요구되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서울교회 법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2022 하반기 성경대학 종강

2022년 하반기 성경대학이 종강하였다.

구약일독학교는 9월 13일(화) - 11월 29일(화)까지 12주였으며 빌립보서 반은 9월 15(목) - 11월 10일(목)까지 8주 동안 진행하였다.

수료자는 구약일독학교 31명, 빌립보서 반

28명으로 총 59명이다.

2023년 봄에 개강하는 2023 성경대학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동참하시기 바란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약일독학교>

강남희 김순진 김애리 김인아 김정희 김종태 김찬진 나현주 남태영 박순복 서정현 서은석 석상화 송정운 위성남 이난희 이봉선 이신영 이영옥 임송자 장호림 전광환 전희정 조정옥 주화인 채교천 채혜숙 최세정 한은미 흥정란 정금희

<빌립보서 반>

권성자 김애리 김정두 김찬진 나현주 남재은 남태영 노애리 박순복 서은석 석상화 석춘희 송명원 송정운 신경미 위성남 이난희 이은상 이은희 이인숙 이정하 임미경 임송자 장호림 조상희 채교천 최재련 황금선

대림절 묵상집 재안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2022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대림절 묵상집을 발간하였다.

이 묵상집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묵상집을 아직 받지 못한 성도들은 1층, 2층 로비와 사무국에 비치된 서적을 원하는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란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연말연시 일정표

12. 4(주) : 권사 총회(3부 예배 후)

12. 10(토) : 스테반 총회(오후 3시)

12. 11(주)

· 2023 섬김위원 임명

· 세례식

· 교구 총회

· 찬양예배 시 : 성탄축하 찬양예배
(가브리엘찬양대)

12. 18(주)

· 교사 총회

· 찬양예배 시 : 성탄축하 특별행사
(교육부 전체)

12. 24(토)

· 성탄전야예배(오후 5시)

12. 25(주)

1. 성탄새벽예배 / 호산나찬양대(새벽 5시)

2. 성탄축하예배 : 주일 1, 2, 3부 예배

3. 각 부 교회학교 졸업

4. 항존직 은퇴

5. 장한 어머니상(다자녀, 개근자녀) 시상

6. 성경통독 시상

7. 예·결산 특별제직회(찬양예배 후)

12. 31(토)

· 송년음악회(오후 11시)

1. 1 (주)

· 송구영신예배(0시)

· 신년주일 성찬예배 : 주일 1, 2, 3부 예배

· 예결산 공동의회(찬양예배 후)





2기 아기학교를 수료하고

박지혜 집사(4교구)

우리 집 막내 5살 헤슬이는 주일 오후 2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아기학교 시간이거든요.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 후 본인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책임감도 보이고, 무엇보다 한 시간 남짓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기학교를 한다고 자랑도 하고요.



어린이에게 스며드는 주님의 말씀

매주 주일을 즐겁게 보내면서 말씀은 헤슬이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던 아이가 자그마한 입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말할 때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어른의 언어로 채우기 어렵던 아이의 영성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마냥 길게 느껴지던 12주가 금세 지나가고, 지난주에 수료를 하는데 헤슬



이는 물론 저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겨주신 강남희 전도사님과 유미영 선생님, 박만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닳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기 아기학교를 수료하고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도록



박만옥 집사 (아기학교 교사)

벌써 아기학교 2기 수료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강남희 전도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재미있는 교구놀이와 찬양, 율동, 성경말씀 등 영역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구는 센싱교구로 수업을 하며, 또 모든 간식은 유

기농 제품으로 준비하였으며, 아이들의 미식 성향에 맞게 정성을 들여서 즐겁게 매주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유미영 선생님과 봉사하고 있으며, 새로 등록된 심기언 군은 아기학교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천사 수아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성장하였고, 감쪽하고 발랄한 헤슬이는 아기학교 수료식과 동시에 졸업식을 하고 2023년 봄 유치부 반으로 가게 되어 마음이 많이 아

쉽지만 유치부에서도 밝게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같이 한 여러 어린이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려하나마 봉사에 힘을 보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2 성경대학을 종강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채교천 집사 (성경대학 부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공필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생업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글이던 머

리 속이던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익히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생계수단이고, 삶을 이어갈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인 성도들도 진정한 생명을 지키고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의 양식임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날로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숙명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공부를 서울교회 성경대학에서는 2022년 상반기 출애굽기 반 (강사 : 안용곤 목사님)과 마태복음 반 (강사 : 조동수 목사님)을 시작으로 하반기 구약일독학교(강사 : 장석남 목사님) 빌립보서 반(강사 : 김익환 목사님)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의 성실한 준비와 열정 넘치는 강의로 성경대학을 수강한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성령충만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약일독 공부를 하면서 양자였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녀로 빌립보

서를 공부하면서 천국시민권자로서의 기쁨과 자각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강사 목사님들께서 자신들만의 특화된 훌륭한 교수법으로 은혜 넘치는 강의를 하셨는데 이를 다양하게 맛보는 것도 강의를 듣는 즐거움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에 반장님들이 수고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가 영육간의 즐거움을 더 하였습니다.

2023년 성경대학은 더욱 기대가 큼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기 성경대학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성경대학을 고대하며 성령충만의 말씀을 능력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서울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3년 성경대학에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성경대학을 함께 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며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2023 성경대학으로 초대합니다.

어? 구약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일독학교를 수료한 성도들

석상화 권사	<p>목사님께서 구약일독학교를 연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거다”며 참여하였습니다. 구약 읽기가 힘들어 늘 완독이 아쉬웠고 시대상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순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 시가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읽어야 하는지 성경의 맥을 짚어가며 읽게 해 주셨습니다. 워크북 내용만이 아니라 진짜 구약 일독을 권하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강한 호응에 나도 매일 구약을 읽어왔습니다.</p> <p>오늘로 구약일독학교를 마치고 나니 이전 구약 읽기가 겁나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한 성도님들의 열의와 열정이 나태했던 성경 읽기에 용기를 주고, 무엇보다 장석남 목사님의 열정 어린 강의는 올해 내가 보낸 시간들 속에 보석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신약일독학교도 개강한다고 하니 신약일독도 미리 점찍어 둡니다. 여러 가지 집안 일과 개인 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구약일독학교에 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운 몇 개월이 하나님이나에게 주신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인 듯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p>
김순진 권사	<p>해마다 성경통독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늘 막혀서 그냥 뛰어넘거나 졸면서 지나갔는데, 구약일독학교에서 성경의 역사 순서를 잡아주고 앞뒤 맥락을 짚어 주시니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입니다. 특히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나니 성경의 큰 줄기가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참만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 전도에도 이어지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p>
위성남 권사	<p>9월의 어느 화요일 답답하고 무료한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구약일독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생수를 마신 듯 공부 전에 부른 찬송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었지요. 이어서 배운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집에 가서 읽는 숙제들... 찬송과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명, 정체성 등을 알아가며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함께 공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p>
임송자 권사	<p>그동안 늘 통독은 해 왔지만, 이번 구약일독학교에서 장석남 목사님을 통하여 배운 구약의 맥락과 시대 배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p>

한은미 권사	<p>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언가 핵심은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구약일독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너무나 확실함을 갖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심판의 진정한 의미와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는 것을 생생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p>
홍정란 권사	<p>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꿰뚫어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 낭독 파일을 올려주셔서 따라 읽으며 감동받게 하셔서 은혜로웠고, 성경을 지식으로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체험하였습니다. 바른 자세로 말씀 배우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p>
이난희 권사	<p>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심오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자 했는데, 저에게 이와 같이 황금 같은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게 되었고, 궁금했던 부분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p>
김정희 권사	<p>성경의 구약 부분은 언제나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고 어려우며 지루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일독학교에서 공부하며 구약의 전체적인 개관을 알게 되었고, 맥을 짚으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약을 다시 읽게 되면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에게는 정말 유익하고 은혜로운 수업이었습니다. 내년에 공부하게 될 신약일독학교도 기대가 됩니다.</p>
이신영 집사	<p>하나님, 이렇게 쉬는 기간에 성경을 잘 알아보고 읽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일독학교에 들어와서 결국 올해 안에 구약을 다 읽고 공부해 보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게 해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읽어지지 않던 성경의 흐름을 신기하게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약일독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질문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스스로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일조도 열심히 잘 구별하여 드리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크게 이루고 크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p>



지난 11월 30일(수) 수요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돌성경 앞에서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인도하에 2022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번 교회 성탄 장식은 서울교회 디자인 팀(팀장 : 홍창훈 집사) 중 디스플레이 파트인 김연화 권사, 남재은 집사, 노애리 집사, 유은경 집사, 조상희 집사와 오윤걸 장로, 교회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셨다.



지난 주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재단이 주최하는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가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렸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용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동정

■ 독주회 : 8교구 장윤식 집사
제13회 장윤식 기타리사이틀,
12월 17일(토) 오후 7시,
J Arts Hall 제이아트홀(방배역 1번 출구)

■ 식사 제공:
조원영 목사 · 이진희 사모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성경통독 연말 시상 안내

성경통독 격려를 위하여 연말 성경통독 시상상을 한다.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은 교구 간사/다락방장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2층 본당 앞에 비치된 '성경통독 수거함'에 성경 읽기표를 넣어 주시기 바란다.

접수 기한은 12월 18일(주일)까지이다."

고등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주일 오전 8시 30분 - 10시 30분

고등부(부장 : 한상욱 집사)는 매주일 고등부 예배(오전 8시 30분 - 10시 30분, 101호) 시간 피아노 반주자를 찾는다.

봉사자는 찬송가와 복음송 등 찬송과 찬양 반주를 통해 고등부 학생들의 영성과 신앙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010-8007-1506(한상욱 고등부 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 둘째 주간예 그리스도의 겸비와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서울교회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3. 눈물과 신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곳에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에는 복음 위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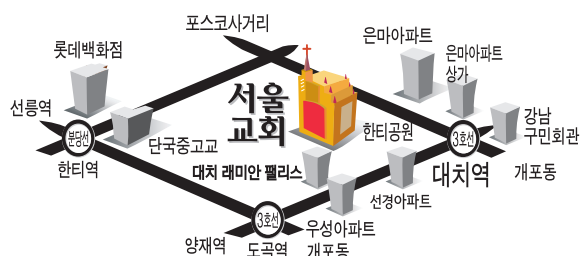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2월5일	월	엡 5-6		행 14-18	
12월6일	화	빌 1-4		행 19-23	
12월7일	수	골 1-4		행 24-28	
12월8일	목	살전 1-5		롬 1-6	
12월9일	금	살후 1-3		롬 7-12	
12월10일	토	딤후 1-6		롬 13-16, 고전 1-5	
12월11일	주일	딤후 1-4		고전 6-12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